



제 25 회 고난국제교류라운지 마쓰리

오전부

부모나 남편의 일, 자신의 공부나 새로운 도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일본을 찾아온 10 명의 외국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 일본어를 말할 수 있게 되고 싶어서 라운지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라운지 마쓰리날에는 각자가 일본어로 자기의 생각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에서 살면서 느낀 점, 일본에서 본 모국의 모습, 일본에서 좋아하게 된 것, 일본과 모국의 닮은 점. 일상 생활 속에서 마음에 떠오른 감정을 쉬운 말로 전해 주었습니다.



2월 15일 (일)
히마와리노 사토에서
개최했습니다.



그중에는 일본에 막 도착했을 무렵 일본어를 전혀 몰라서 어딘가에 가는 것도 가족의 도움이 필요했던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어를 조금씩 공부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늘어감에 따라서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편하다니”라고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에서의 불런티어 활동을 통해서 여러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고 그 인연을 즐긴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든 스피치에서 「더불어 살아 간다」라는 따뜻한 생각이 전해져 왔습니다.

오후부

11 팀 모두가 합창과 댄스, 연주를 해주었습니다. 똑같이 음악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는데도 각 그룹의 분위기가 전혀 달라서 정말로 멋있었습니다. 특히 외국 댄스는 귀에 익숙하지 않은 리듬이 매우 신선해서 자기도 모르게 “와!”하고 소리를 낼 정도. 노래나 춤에 어울리는 알록달록한 아름다운 의상도 회장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라운지에서 일하는 8 명의 외국어 번역스태프입니다. 일본어와 모국어로 라운지에서 하는 일을 소개했습니다. 라운지에서는 일본어를 할 수 없어도 모국어로 곤란한 문제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행정서사에 의한 채용자격상담회도 동시에 개최되었습니다. 라운지에서도 개최하므로 개최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의 축하댄스는 악기 소리와 경쾌한 움직임으로 회장 분위기를 단숨에 고조시켰습니다. 댄서가 관객에게 춤을 권하자 모두가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면서 즐겼습니다.

필리핀의 줌바는 심플한 리듬과 반복 동작이 평안해서 보고 있는 것만으로 문득 자기도 춤을 춰 보고 싶을 정도로 재미가 있었습니다.



라운지 외국어 번역 스태프에게 물어봤습니다.



라운지 волонтер

일본어를 공부할 때 어려웠던 점, 쉬웠던 점을 알려 주세요

악센트와 인토네이션이 어려워요. 게다가 활용을 할 때 인토네이션이 바뀌는 것이 더욱 힘듭니다. 한국어와 어순이 같아서 배우기가 쉽습니다.



한국어 담당



쓰레기를 버릴 때 주의하는 것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생선 등 수산물을 다듬고 나온 쓰레기는 더 이상 썩지 않게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버립니다. 스프레이캔은 가스를 빼야 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배출합니다. 가스를 빼는 도구가 있으면 아주 편리합니다.



앞으로 거주할 장소를 고르는 포인트를 가르쳐 주세요.

직장까지 교통편이 좋은지, 역에서부터 걸어서 갈 수 있는 범위인지, 버스 정류장이 가까운지 등입니다.



일본 음식 중에서 자주 만드는 요리를 알려 주세요

된장국, 생선찌개, 가츠동, 스키야키입니다.



주택문제

공동주택의 복도는 모두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 현관 앞에 자기의 물건을 놓아 두어서는 안 됩니다.우산이나 택배로 배달된 물건은 재빨리 자기 집안으로 들여놓읍시다.

